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와의 종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박 우 랫

함양 서하초등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52명에게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2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시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1차와 2차시기에서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에가 높고, 1차와 2차시기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1차와 2차시기에서 내현적 자기에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 및 내현적 자기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시기에서 횡단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7개월 간격으로 수집한 자료 모두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시기에 측정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7개월 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현재 및 7개월 후의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에를 더 잘 예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의 거부민감성의 발달이 내현적 자기에를 발달시키는 선행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내현적 자기에

* 본 연구는 박우랍(2014년)의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Tel : 055-740-1294, E-mail : shhong@cue.ac.kr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니는 하나의 성격이나 성향으로서 자신에 대한 심리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정의(Bursten, 1982)한다. 자기애는 단순히 자기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웅대한 자기상(self image)을 형성하거나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문제를 나타내는 등의 병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공감능력과 배려심이 낮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거만하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한수정, 권석만, 2000). 또한 자기애적 성향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이어서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정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울과 불안 같은 심각한 내재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애는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Raskin, Novacek, & Hogan, 1991; Rhodewalt & Morf, 1995; 이정민, 2009)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지배성과 적대감이 높아 매우 공격적일 수 있다(차태순, 2002). 특히 비행청소년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자기애와 지배성, 공격성의 상관성이 높고 자기애와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간에는 많은 관련이 있다(박정민, 1998).

아동기의 자기애는 자기중심성과 자기과시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성인의 자기애와 핵심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지만 성인의 자기애보다 과도한 인정욕구와 비현실적인 자기지각이 더 뚜렷이 나타나므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Harter, 1999, 2006; Hymel, Rubin, & LeMare, 1990). 이러한 점에서 자기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전되기 전에 조기 개입과 치료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애 발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다(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열등감과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는 현저하지 않고, 웅대성(grandiosity)과 과장된 자기지각, 과시적인 태도가 주된 특징인데 반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상처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매우 높고 무의식적인 웅대감을 억압하여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며, 우울, 불안, 과민한 모습들이 현상적으로 뚜렷이 드러난다(강선희, 정남운, 2002). 최근의 연구자들(강은희, 2002; 강선희, 정남운, 2002; Cooper, 2000)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며 우울과 불안에 보다 취약하다. 내현적 자기애가 강한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한 자기고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Luchner, Mirsalimi, Moser & Jones, 2008).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사회적 지지와 강화를 추구하게 되고 내적인 자기만족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이승현, 2007).

자기애는 유아가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있는 좌절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 자기중심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달되거나 반대로 좌절경험이 매우 지나칠 때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애적 성격을 발달시키게 된다(Kohut,

1977). 그리고 자녀무시가설(parental devalu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자기애는 주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될 때 발달한다(Kernberg, 1975). 반면에 사회학습이론가 Millon(1981, 1985)은 자기애의 발달에는 부모의 과잉보호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자녀 과잉보호가설(parental overvaluation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거나 완벽하다고 믿고 키우기 때문에 아동이 그런 부모를 동일시하여 자신을 사랑스럽고 완벽하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Millon의 자녀과잉보호가설은 부모의 비현실적인 강화와 지나친 애정이 아동의 자기애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 Kernberg(1975)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ernberg의 자녀 무시가설은 자기애적 성향 중 내면적 취약성과 과민성을 핵심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발달을 더 잘 설명해주고, Millon의 자녀 과잉보호가설은 병리적 웅대성과 과장된 자기 지각, 우월감이 좀 더 뚜렷이 드러나는 외현적 자기애의 발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고 있다(황안나, 2011).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정서적 무시,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적 단절도식, 가정폭력 등의 많은 변인들이 보고(이윤희, 2012; Wink, 1991)되고 있으나 이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배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들은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mith & Myron-Wilson, 1998).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홍나영,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정은지, 2013) 등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긴밀한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윤혜신, 2004).

한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내현적 자기애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라는 인지적 취약성을 발달시킨다(유고은, 2011; Downey & Feldman, 1994; Erozkhan 2009).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절을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Feldman & Downey, 1994)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하고 걱정을 느끼며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고 거부당서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거부를 당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Peake & Rodriguez, 2000).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위축,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고 거부민감성이 낮은 집단보다 매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재적 문제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London, Downey, & Paltin, 2007).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거부에 대한 불안과 우울, 분노반응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핵심특징으로 가지는 개념이라면 내현적 자기애는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유고은, 2011),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가혹한 훈육, 가정폭력, 정서적 무시, 부모의 조건적 사랑 등을 들 수 있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Rincon, Freitas, 1998).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 중에서도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동이 양육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야 할 부모로부터 지속적이고 냉담한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 거부민감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부에 대한 방어적인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즉 유아기나 아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거부적인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인 거절이나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 이후에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생애 초기에 거부적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악의 없는 어떤 단서나 행동에 대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 지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안, 분노와 같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과잉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도 외현적 공격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Ayduk, Downey, & Kim, 2001; Downey, Feldman, 1994). 이는 양육초기의 버려짐, 학대 수치 및 배신과 같은 거부경험에서 초래된 기본적 불안은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한 Horney(1937), 의미 있는 타인이 개인의 욕구를 처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

한 부정적 기대가 발달한다는 Sullivan(1937) 등과 같은 고전적인 대인관계이론가들의 주장과도 매우 일치한다.

한편 거부에 민감한 아동은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므로(이정민, 2009; 홍상황, 이은주, 2014)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를 다룬 국내의 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거부민감성의 발달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일수록 거부민감성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유고은, 2011; Erozkhan, 2009)와 부모의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들(홍나영, 2012; 정은지, 2013)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적인 선행변인 중 하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동일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두 변인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거부에 민감한 아동은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데(홍상황, 이은주, 2014), 이러한 특징은 내현적 자기애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많은 내현적 자기애 척도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애의 핵심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현적 자기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간접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내현적 자기애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을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경남에 소재한 11개 초등학교 5, 6학년 776명을 대상으로 7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2차시기에 누락된 자료 224부를 제외한 55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5학년 203명(남자 101명, 여자 102명), 6학년 349명(남자 182명, 여자 16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1.67세(SD=.48)이었다.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Schaefer(1959)가 제작한 애정-적대, 자율-통제 부모양육척도에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라는 2가지 차원을 추가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차원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총 60문항을 거의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은 편이다(1), 그런 편이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의 질문지에는 긍정적인 문항 28개, 부정적인 문항 32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문항 1개를 부정적인 문항 1개로 수정하여 긍정적인 문항 27개, 부정적인 문항 33개로 구성하였고 8개 문항은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척도는 부정적인 양육태도 문항을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이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애정-적대 차원은 .81, 자율-통제 차원은 .68, 성취-비성취 차원은 .70, 합리-비합리 차원은 .75이었다.

아동용 자기애 척도

아동의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홍상황, 광평호, 한태희(2011)가 국내외에서 자기애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자기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핵심 특징을 도출하여 구성한 아동용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현적 자기애척도 24문항, 내현적 자기애척도 18문항, 총 42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18문항만을 사용하였고 홍상황 등(2011)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척도 1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7, 착취와 공격성은 .75, 과민성과 취약성은 .79,

자기중심성은 .76이었다. 본 연구 1차시기의 내적 합치도는 착취와 공격성은 .69, 과민성과 취약성은 .74, 자기중심성은 .70, 전체는 .84, 2차시기에서는 각각 .73, .76, .74, .86이었다.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것을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보완한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K-CRSQ)를 사용하였다. K-CRSQ는 또래관련 상황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 총 12가지 거부상황에서 아동이 거부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이라는 3가지 예상정서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도(거부예상신념)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거부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정서와 거부예상 정도를 곱하여 거부불안 민감성(거부예상불안×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 민감성(거부예상분노×거부예상정도), 거부우울 민감성(거부예상우울×거부예상정도)으로 나누어 채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거부불안 민감성 .88, 거부분노 민감성 .86, 거부우울 민감성 .89, 전체는 .84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1차시기에서 거부불안 민감성 .90, 거부분노 민감성 .90, 거부우울 민감성 .91, 전체는 .97, 2차시기에서는 각각 .93, .93, .94, .97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7개월 간격으로 2회 자료를 수집

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1차와 2차 시기에서 수집한 자료를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른 1차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에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상하위 33.3% 범위로 구분하여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고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및 내현적 자기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1차시기의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1차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잠재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할 경우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 유의도를 검증하는데 유용하다.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는 표집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오류를 측정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CFI와 TLI는 값이 클수록 좋은 모형이고 대략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공식(Preacher & Hayes, 2004)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인간 상관, 기술통계치 및 내적 합치도

1차와 2차시기에 수집한 3가지 변인간의 상관, 기술통계치 및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고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변수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1차와 2차시기 각 측정변수의 왜도는 절대값 2.0, 첨도는 절대값 4.0을 초과하지 않아 정

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인들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r(552)=.56, p<.01$), 내현적 자기애($r(552)=.49, p<.01$),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r(552)=.60, p<.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차와 2차시기의 잠재변수의 상관패턴을 종합하여 볼 때 1차시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일수록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고,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일수록 7개월 후인 2차 시기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아동은 7개월 후인 2차 시기에도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1차시기에서 두 변인간의 상관은 .60, 2차시기에는 .63,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 간의 상관은 .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거부민

표 1. 1차 및 2차시기의 변인의 상관, 기술통계치 및 내적합치도(N=552)

시기	측정변수	1	2	3	4	5	6	M	SD	α	왜도	첨도
1차	1. 부모의 양육태도	-						353.50	36.40	.90	.84	2.32
	2. 거부민감성	.56**	-					149.85	79.87	.97	1.27	2.25
	3. 내현적 자기애	.49**	.60**	-				10.43	7.11	.84	.78	2.00
2차	4. 부모의 양육태도	.54**	.31**	.30**	-			360.76	35.27	.90	.44	.57
	5. 거부민감성	.49**	.62**	.38**	.47**	-		149.37	85.53	.97	1.52	2.33
	6. 내현적 자기애	.40**	.38**	.53**	.41**	.63**	-	10.65	7.92	.86	1.08	1.21

** $p<.01$

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차이검증

1차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1, 2차 시기의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점수가 높고 1차 시기의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1, 2차 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의 점수가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1차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 수준을 상하위 33.3% 범위로 구분하여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 하였다(표 2와 3).

1차시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집단은 1차($F=48.12, p<.001$)와 2차시기($F=87.60, p<.001$)의 거부민감성, 1차($F=41.5, p<.001$)와 2차시기($F=74.20, p<.001$)의 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1차시기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1차($F=112.16, p<.001$)와 2차시기($F=35.91, p<.001$) 내현적 자기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현재뿐만 아니라 7개월 후에도 여전히 거부민감성과 내

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차이

	부정적 양육태도: 1차						F	Sig.
	상(n=166)		중(n=202)		하(n=184)			
	M	SD	M	SD	M	SD		
거부민감성: 1차	193.42 _a	99.31	149.19 _b	67.04	118.36 _c	58.40	48.12 ^{***}	.000
거부민감성: 2차	227.51 _a	100.92	143.66 _b	67.04	79.24 _c	37.60	87.60 ^{***}	.000
내현적 자기애: 1차	13.78 _a	7.94	10.07 _b	6.43	7.66 _c	5.42	41.50 ^{***}	.000
내현적 자기애: 2차	16.67 _a	7.84	10.29 _b	7.26	6.47 _c	3.93	74.20 ^{***}	.000

*** $p<.001$, 평균값의 아래 첨자 알파벳 문자가 다른 것끼리는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c$).

표 3. 거부민감성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의 차이

	거부민감성: 1차						F	Sig.
	상(n=138)		중(n=191)		하(n=200)			
	M	SD	M	SD	M	SD		
내현적 자기애: 1차	15.52 _a	7.51	10.60 _b	5.94	6.60 _c	4.94	112.16 ^{***}	.000
내현적 자기애: 2차	14.62 _a	7.90	10.30 _b	7.27	8.02 _c	6.21	35.91 ^{***}	.000

*** $p<.001$, 평균값의 아래 첨자 알파벳 문자가 다른 것끼리는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c$).

현적 자기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7개월 후에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통해 두 변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선행 변인인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 시기의 거부민감성이 1차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예언해주는 변인인지를 알아본 후, 1차시기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1

차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하였다.

1차와 2차시기에서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애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1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38.8%($F=166.75, p<.001$),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20.0%($F=64.55, p<.001$), 1차시기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약 40.6%($F=181.70, 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에서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회귀분석한 결과를 통합해보면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면 아동은 거부와 비판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여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에 대한

표 4.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단계	변인	Beta	t		ΔR^2	F
종속변인: 내현적 자기애 (1차)						
1	거부민감성: 1차	.595	16.98***	.354	.352	288.27***
2	거부민감성: 1차	.468	11.33***	.388	.386	166.75***
	부정적 양육태도: 1차	.225	5.44***			
종속변인: 내현적 자기애 (2차)						
1	거부민감성: 1차	.403	10.09***	.162	.160	101.89***
2	거부민감성: 1차	.275	5.81***	.204	.200	64.55***
	부정적 양육태도: 1차	.227	4.79**			
종속변인: 내현적 자기애 (2차)						
1	거부민감성: 2차	.630	18.64***	.397	.396	347.58***
2	거부민감성: 2차	.571	14.81***	.409	.406	181.70***
	부정적 양육태도: 1차	.181	3.15**			

*** $p < .001$

보상을 타인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조모형 검증

선행연구와 자료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거부민감성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의 관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으로 나누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에로 가

는 직접경로와 거부민감성을 거쳐 가는 간접 경로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내현적 자기에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각각 설정하였다(그림 1, 2 및 3).

또한 특정 시기의 거부민감성이 이후 시기의 내현적 자기에를 발달시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7개월 간격으로 수집한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1차와 2차 시기의 측정변인을 포함하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수립하고 7개월 간격으로 수집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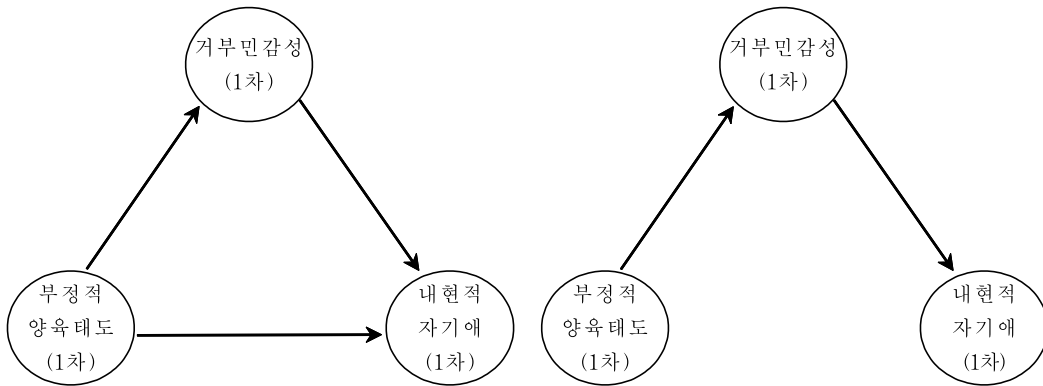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과 대안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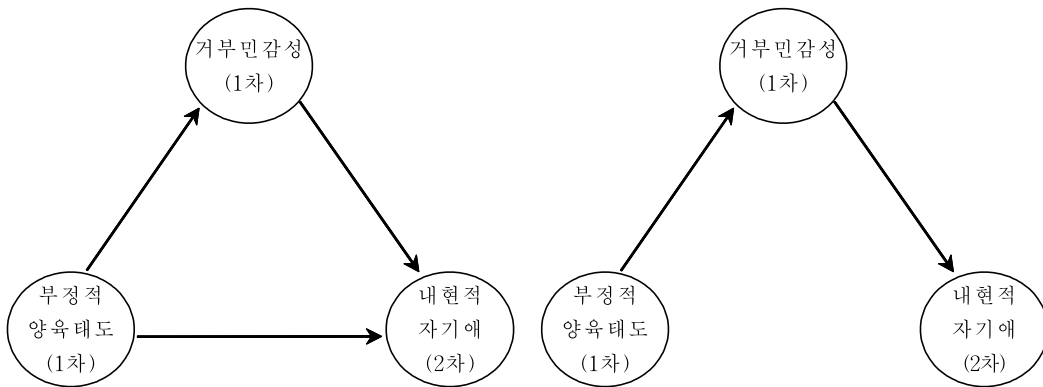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와 대안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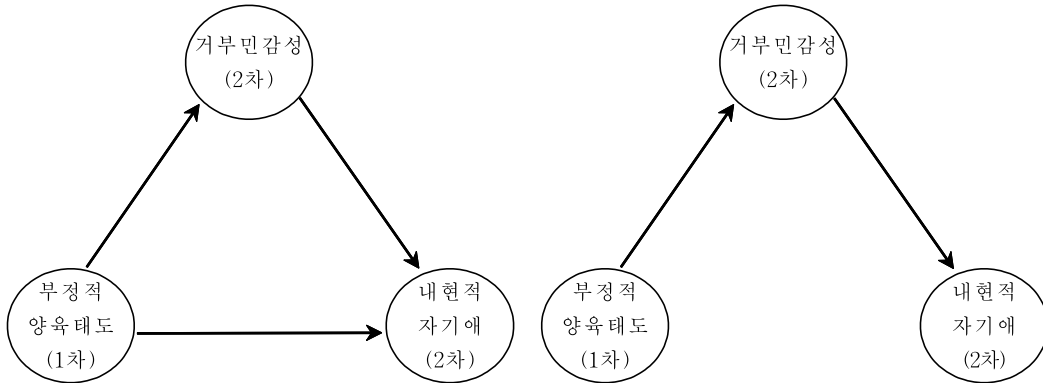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3과 대안모형 3

중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자료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의 자료를 투입한 것을 연구모형2와 대안모형2,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료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 및 내현적 자기애의 수집된 자료를 투입한 것을 연구모형3과 대안모형3으로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검증하고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표 5, 6).

1차시기의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TLI와 CFI값은 모두 .95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으나, RMSEA값은 연구모형만이 좋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08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각각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χ^2 값 차이는 29.845로 유의수준 .05에서 χ^2 의 임계값인 3.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며 χ^2 값이 더 작은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2와 대안모형2, 연구모형3과 대안모형3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직접경로와 1차, 2차시기의 거

표 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SMC
연구모형 1	144.364	32	.000	.973	.962	.073 (.062~.085)	.544
대안모형 1	174.209	33	.000	.954	.966	.090 (.077~.103)	.484
연구모형 2	96.432	32	.000	.978	.984	.062 (.048~.076)	.344
대안모형 2	129.943	33	.000	.968	.976	.075 (.061~.088)	.254
연구모형 3	129.432	32	.000	.967	.976	.076 (.063~.090)	.561
대안모형 3	142.009	33	.000	.964	.974	.079 (.066~.093)	.484

표 6. 연구모형의 효과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연구모형 1				
양육태도(1차) → 거부민감성(1차)	.544	-	.544	.344
양육태도(1차) → 내현적 자기애(1차)	.302	.282	.584	.544
거부민감성(1차) → 내현적 자기애(1차)	.519	-	.519	
연구모형 2				
양육태도(1차) → 거부민감성(1차)	.586	-	.586	.254
양육태도(1차) → 내현적 자기애(2차)	.203	.209	.412	.344
거부민감성(1차) → 내현적 자기애(2차)	.357	-	.357	
연구모형 3				
양육태도(1차) → 거부민감성(2차)	.510	-	.510	.260
양육태도(1차) → 내현적 자기애(2차)	.164	.332	.496	.559
거부민감성(2차) → 내현적 자기애(2차)	.651	-	.651	

부민감성의 매개를 통해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간접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 2(TLI=.978, CFI=.984, RMSEA=.062)와 연구모형 3(TLI=.967, CFI=.976, RMSEA=.076)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한 대안모형 2의 적합도(TLI=.968, CFI=.976, RMSEA=.075)와 대안모형 3의 적합도(TLI=.964, CFI=.974, RMSEA=.079)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2와 대안모형 2, 연구모형 3과 대안모형 3 모두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 2와 대안모형 2의 차이는 자유도의 차이가 1인데, χ^2 값의 차이가 33.51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연구모형 3과 대안모형 3의 차이는 역시 자유도의 차이가 1인데, χ^2 값의 차이가 12.57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TLI, CFI, RMSEA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할 때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 2와 3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를 1차 및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하는 연구모형 2와 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1차 및 2차시기에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살펴보았다(표 7). 이를 살펴보면 1차시기 연구모형에서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519~.544이고, 두 변인이 모두 내현적 자기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1%였고,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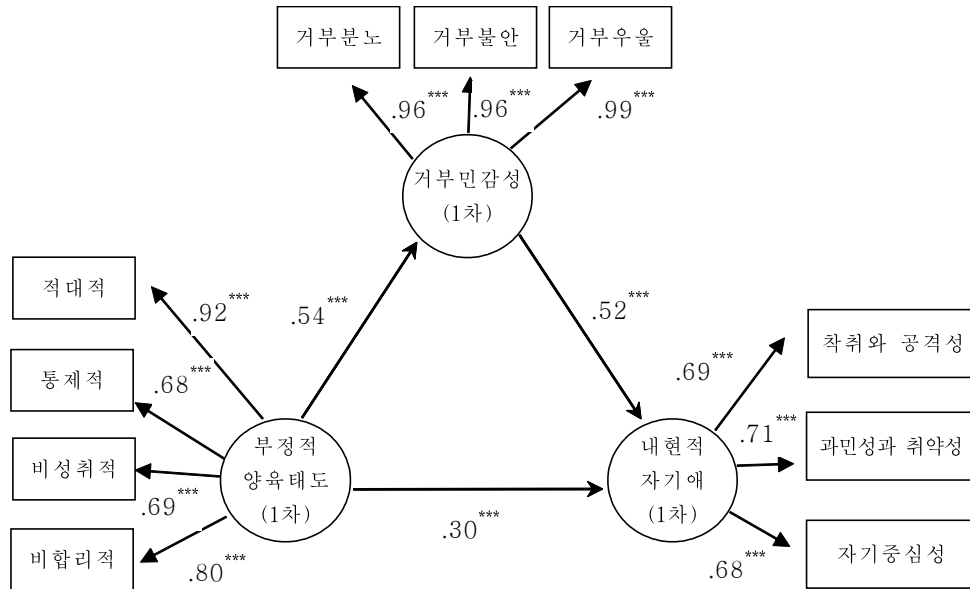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1

약 49%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가 비슷하였다. 또한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약 3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를 약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미한 직접 및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4).

또한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을 거쳐 2차시기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연구모형2의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고, 간접효과가 차지

하는 비율은 51%로 나타났다(그림 5). 그리고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을 거쳐 2차시기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연구모형3의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였고,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로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연구모형2의 다중상관치를 살펴보면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을 25%정도 예측하며 1차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34%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모형3의 다중상관치를 살펴보면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을 약 26% 정도 예측하며, 두 변인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약 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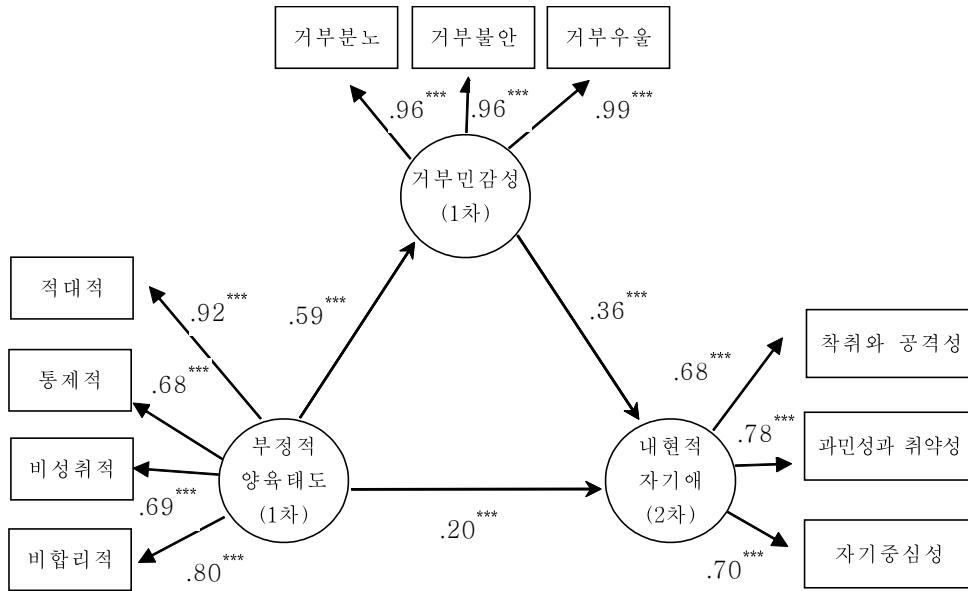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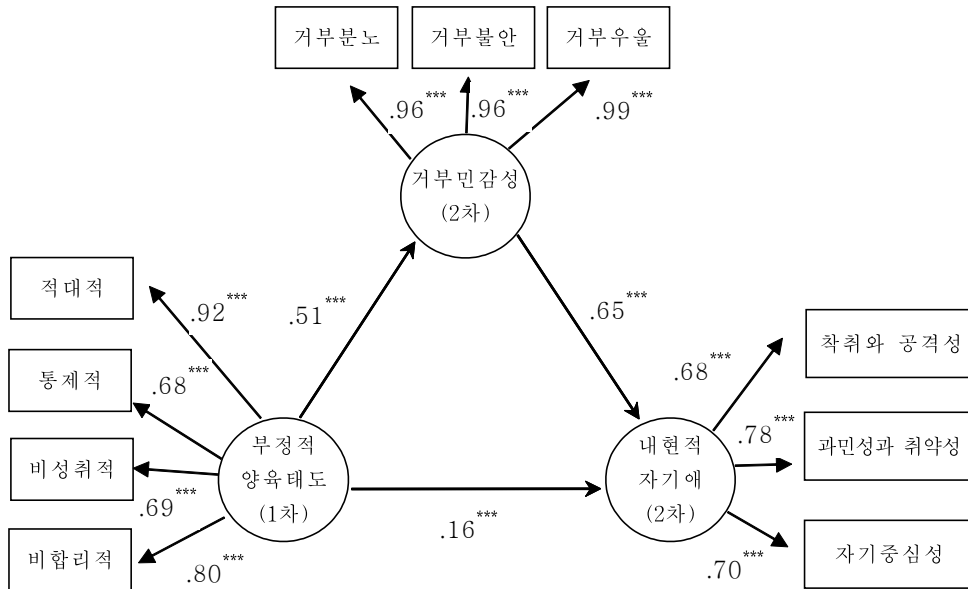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형 3

매개효과 검증

부정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2차시기의 거

표 7.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양육태도 (1차)	→	거부민감성 (1차)	→	내현적 자기애 (1차)	9.71 ^{***}
양육태도 (1차)	→	거부민감성 (1차)	→	내현적 자기애 (2차)	5.12 ^{***}
양육태도 (1차)	→	거부민감성 (2차)	→	내현적 자기애 (2차)	7.63 ^{***}

부민감성에 영향을 주어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표 7).

최종모형의 단순매개 효과는 Sobel(1982)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Sobel 검증은 간접효과를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로 나누어 검증통계량인 Z값을 구하는 것으로, $b / \sqrt{b_a^2 + a^2 S_b^2}$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a와 b는 경로 a, b의 비표준화 계수, S_a 는 a의 표준오차, S_b 는 b의 표준오차이다. 일반적으로 Z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면 모형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절대값 2.58보다 크면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분석 결과,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Z=9.7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Z=5.1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1차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Z=7.63,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의 선행요인인지 그리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552명을 대상으로 7개월 간격으로 2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간 상관을 검토하고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하였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선행요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의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1차와 2차에서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높고, 1차와 2차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1차와 2차에서 내현적 자기애도 높았다. 이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지속적으로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내

현적 자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거부민감성이 높고(Erozkan, 2009; 유고은,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이고 비합리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다(이윤희, 2012)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변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에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성취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홍나영, 2012)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정은지, 201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혹독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취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거부민감성이 발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는 것을 지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유고은, 2011; 황은수, 성영혜, 2009; Downey & Feldman, 1994; Erozkan, 2009)과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아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방어적 기대를 발달하게 되고 이후 거부단서나 징후에 대해 과경계하고 사소한 단서에 대해서도 쉽게 거부징후로 지각하여 거부를 피하는데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에와 높은 상관을 나타

내었는데 이는 거부에 민감한 아동들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홍상환, 이경연, 2013)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London et al., 200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에를 예측하는 변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내현적 자기에를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특히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1차와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에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모두 거부민감성의 설명력은 양육태도보다 높았다. 회귀분석에 따른 결과와 1차와 2차 시기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각 시기에서 내현적 자기에도 높았다는 결과를 종합해보면 거부민감성은 내현적 자기에를 발달시키는 분명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아동이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에 대한 보상을 타인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와 비판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다는 연구결과(Luchner, Mirsalimi, Moser & Jones, 2008; 이승현, 2011)와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시기의 자료를 투입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대안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3가지 모형, 즉 부정적 양육태도(1차)→거부민감성(1차)→내현적 자기에(1차), 부정적 양육태도(1차)→거부민감성(1차)→내현적 자기에(2차), 부정적 양육태도(1차)→거

부민감성(2차)→내현적 자기애(2차)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1차와 2차시기의 거부민감성을 거쳐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간접효과(65%)는 직접효과(3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횡단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종단적 자료를 포함시킨 연구모형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어서 내현적 자기애가 발달된다는 순차적 또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부풀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단점을 회색시키기 위해 자기애를 발달시키게 되고(이정민, 2009) 자기애적 성향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나 거부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할 수 있다(Kohut, 1971, 1977; Lasch, 1979)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거부민감성이라는 인지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한 자기상을 부풀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발달시킨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를 발달시키는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횡단적, 종단적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시기의 거부민

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은 .60~.63 범위로 비교적 높지만, 1차시기의 거부민감성과 2차시기의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은 .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변화과정을 다루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7개월 간격으로 두 번 자료를 수집하여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 간의 인과적 관계에 초점을 두기는 하였지만, 자료수집 간격이 짧고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로 이어진다는 순차적인 시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3차시기의 자료를 수집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14(4), 969-990.
- 강은희 (200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분석: 자기애 성향,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혜정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수현 (2009). 아동·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자기애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 (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운 (2004).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운,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배매리 (2006). 외동아와 형제아의 애착과 자기애의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미 (2013). 아동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영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문현 (1983). 도시주부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노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준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과 도덕성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신 (2004).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 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연 (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03). 아동의 자기애와 외로움 및 협동성.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2). 방임적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 자기개념명료성과 정서적 단절도식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9).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애와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희 (2006).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지 (201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규남 (2008). 초등학생의 자기애적 성향과 성취목표지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나영 (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곽평호, 한태희 (2011). 아동용 자기애 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7(3), 333-352.
- 홍상황, 이경연 (2013).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2(1), 69-86.
- 홍상황,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9-69.
- 황안나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 9(3), 67-84.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4), 776-792.
- Ayduk, O., Mischel, W., & Downey, G. (2002). Attentional mechanisms linking rejection to hostile reactivity: The role of "hot" versus "cool"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3(5), 443-448.
- Baumeister, Roy F., & Leary, Mark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rind, D. (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245-249.
- Berenson, K. R.,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Bieberg, M. D.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2, 201-209.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new york: Basic books. 3.
- Browne,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age, Thousand Oaks, CA.
- Bustern, B.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tic and antisoci al personalities. *psychiatric Clinical North America*, 12, 571-584.
- Cohen, P., Chen, H., Crawford, T. N., Brook, J. S. (2007). Personality disorders in early adolescence and the development of later substance use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8.
- Cooper, A. M. (2002). Further development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200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 M. B. Roba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pp.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Emmons, R. A. (1987).
-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3), 369-379.
- Dickerson, S. S. (2004). *Social-evaluative threat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ffects on emotional, proinflammatory, and cortisol responses to acute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 Downey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 Faria, L. (2001).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Adapted For Use With Young Portuguese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2*.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31
- Freud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Galliher, R. V., & Bentley, C. G. (2010). Link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solving behavior.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 603-623
- Goldman, G. F. (1997). Kohut's Theory of Narcissism and Adolescent Drug Abuse Treatment. *Psychoanalytic Psychology, 14*(1)
- Hendin, H. M.,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 Hymel, Shelley., LeMare., & Lucy. (1999). Assessing self-concept i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behavior and development, 45*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1992). Narcissism and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57-370.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lein, H. A. (1995). Self-perception in late adolescence: An interactive perspective. *Adolescence 30*, 579-591
- Kohut, H. (1977).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ernberg, O. F. (1974) Further contributions to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ies. *IntJ psychoa, 55*, 215-247.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5), 481-506.
- Luchner, A. F., Mirsalimi, H., Moser, C.J. & Jones. (2008). Maintaining Boundaries in Psychotherapy: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sychotherapists. *Psychotherapy, 45*(1).
- Madinnus, G, R., Curtis, F. J. (1963).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
- Masterson. S. F. (1985). The Real Self. *New York: wiley*.
- Millon. T. (1981). Disorder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7.
- Raskin, P. J.,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askin, P. J.,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P. J., Robert Novacek., & Hogan.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psycscam psychoanalysis*. 5.
- Rank, O., Ein Beitrag zum narzissmus, (1911). *Jb, Psychoanalysis & Psychopathology. Forsh*, 3, 401-426.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Schaefer. E. S., &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Smith., & Myron-Wilson, R. (1998). A matter of degrees: the rising number of 'good' degrees in psychology and at how departments vary. *Psychologist-leicester*, 11(11).
- Simpson, J. A.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the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원 고 접 수 일 : 2014. 07.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1. 01.

최종게재결정일 : 2014. 11. 04.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Covert Narcissism

Woo-ram, Park

Seoha Elementary School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n the children and covert narcissism.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55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in Gyeongsangnam-do by researching the measure of parenting attitude, rejection sensitivity and covert narcissism in twic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who recognize parenting attitude more negatively in the first research express higher rejection sensitivity and covert narcissism in the second research. In addition, the children who have a high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display a high level of covert narcissism in both researches. Seco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variables demonstr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among negative parenting attitude, rejection sensitivity and covert narcissism. And Rejection sensitivity became evident to have the mediation effects in both data of cross-sectional research and seven-month intervals in the first research. This not only means that negative parenting attitude conducted in the first research is more effective in predicting covert narcissism in the second, but also that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is more effective in predicting covert narcissism. This suggests that children's development of rejection sensitivity can be a precedence factor for developing covert narcissism.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 rejection sensitivity, covert narcissism